

## 성경적 경제학의 재구축을 위한 인식 체계의 탐색

황희영(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 교수)

### 논문초록

지난 30여 년 동안 시장자본주의 중심의 현대경제학에 대해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비판이 있었다. 이 비판은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윤리적인 혹은 가치관에 관한 비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인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현대경제학이 성경의 경제 원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경제학은 뚜렷한 학문체계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독교 경제학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서로 다른 여러 관점을 취하고 있다. 성경적인 경제학의 인식체계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성경적 경제학의 재구축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인식 체계를 제안한다. 첫째, 기독교 경제학의 학문적 위상과 목적을 포함하여 인식의 틀을 재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기독교 경제학의 학문적 결과들의 상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관한 성경적 원리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수렴하므로 이 원리들로부터 방법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제안으로서 위와 같은 성경적 경제 원리들과 새로운 인식 틀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경제학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기독교 경제학, 성경적 경제학, 성경적 경제 원리, 성경적 경제학의 인식 체계, 성경적 경제학의 목적, 성경적 경제학의 위상

- I. 문제제기
- II. 새로운 인식 체계의 제안
- III. 성경적 경제 원리들과 방법론의 필요성
- IV. 결론

## I. 문제제기

팀스트라(Tiemstra, 1993), 하트롭(Hartropp, 1997)과 이우성(2001) 등의 연구를 보면 경제에 대한 크리스천 학자들의 연구가 지난 1970년대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문헌들을 때로는 미시, 거시 등과 같은 경제학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보여주거나(Hartropp, 1997: 2-4), 또 때로는 실업 문제와 같은 현실 경제의 실질적인 논의들에 대해 기독교 경제학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도 알려준다(이우성, 2001: 58-70). 경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사는 1990년 옥스퍼드(Oxford) 선언에도 나타나있다.<sup>1)</sup> 팀스트라(Tiemstra, 1993: 231-238)도 경제에 관한 핵심적인 성경적 원리를 소개하는 동시에 신고전학파에 대한 기독교 경제학의 비판의 내용을 보이고 있다.

만약 기독교 경제학이 시장자본주의 중심의 현대경제학에<sup>2)</sup> 대안이 된다면 대안으로서 제시된 점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 현대경제학이 보지 못하는,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분명해지는 이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빈곤의 문제나, 빈부 격차, 생산과 소비의 윤리적 측면, 토지 문제와 조세, 기업과 경영자의 역할, 의사결정 과정 등 매우 다양하다. 이것을 경제에 관한 윤

1) 종교계와 학계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모인 100명 이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독교 신앙과 경제가 어떻게 서로 교차하는지 보여준다.

2) 본고에서 현대경제학이라고 사용할 때 특별한 수식 없이 한 시장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파 경제학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리, 가치관, 혹은 세계관 관점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현대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왜곡된 부분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법 혹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경제학이 실증주의(positivism)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제가 가치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티스트라(Tiemstra, 1993: 236-238)와 이우성(2001: 51-52)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30여 년의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경제학이 경제 학문 그 자체로서 혹은 일반 대중에게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경제학 내에서 기독교 경제학(Christianity and Economics)이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 정의 차원의 실제적이고 주도적인 공헌과 오랜 연구 업적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 경제학의 위상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 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방면으로부터도 있었다. 이 비판들의 세부적 내용은 모두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세계관과 방법론이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즉, 경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틀과 그것을 탐구하고 논증하는 방법에 있어 신고전파 이론과 비판자 사이에 크든 작든 불일치하는 간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전환이 되지 못한 것은 결국 세계관과 방법론을 모두 포함하는 더 강력한 틀을 비판자들이 보여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기독교 경제학의 비판이 한편으로는 세계관에 대해서는 비록 설득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안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 경제학이 현대경제학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도 대안으로 제시하는 세계관이 미약하다면 어느 경우든 기독교 경제학이 독립된 자신의 위상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가 순수한 이성의 사유의 세계가 아니라 생존과 평판이 걸린 수많은 개인의 삶과 그들의 관계 네트워크에도 근거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세계관과 방법론 모두에서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기존의 현대경제학이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를 인지하고 진정한 대안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기독교 경제학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우리자신의 눈, 즉 경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틀과 탐구하고 논증하는 인식(epistemology)의 변화가 동반된다면 결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세계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권위를 가진 텍스트(성경)가 있다.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모든 학문적 뿌리는 결국 “경제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독교 경제학의 취약점은 방법론에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새로운 성경적인 경제학 인식론의 제시와 함께 따라야 할 방법론 차원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기독교 경제학이 봉착한 어려움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기독교 경제학이 현대경제학의 소위 수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과 같거나 혹은 유사한 방법을 계속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에서 통상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논리적이며 경험적으로 실증 가능한 체계 내에서 객관화된 지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기독교 경제학이 방법론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어야 할 성경적 윤리와 가치와 인식은 현대경제학이 말하는 과학성을 상당히 벗어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딜레마처럼 보인다. 방법론의 대안이 없다면 기독교 경제학은 한편으로는 윤리와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는 세계관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높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 인식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과학적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성경적 가치가 미미하게 될 한계적(marginal)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동시에 논리적인 딜레마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논리적인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딜레마에서 우

선 풀려나야 좀 더 뒤로 물러섰을 때 자유로운 시각으로 실제의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에 관한 성경적 인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의 경제 원리들’로서 매우 포괄적이고, 충분히 탐구되었고, 또한 논의되어 왔다.<sup>3)</sup>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결국 피해야 할 곳이 방법론이라면 우리는 기독교 경제학의 방법론을 실증적 과학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옮김으로써 기독교 경제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경제를 비롯한 모든 다스림의 영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법이었기 때문이다.<sup>4)</sup>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 경제의 새로운 인식 체계의 구축과 대안적 방법론의 제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II. 새로운 인식 체계의 제안

### 1. 인식의 틀의 재구축

#### (1)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인식 요소

기독교 경제학 연구가 진실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네 가지 요소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의 필요성의 수용 정도가 연구자마다 다른 것 같다. 세계관과 방법론에 있어 그 동안 기독교 경제학 연구가 여러 흐름으로 나누어졌던 것은 기독교 경제학이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기초에 대한 합의에 이

3) 참고문헌의 목록 전체를 보면 경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계시가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있다.

4)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한 타락에 의해 궁극적으로 ‘과학주의’가 그 법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르지 못했던 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되는 네 가지 요소 또한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기독교 경제학의 성경적 인식론(biblical epistemology)의 기초라고 보이는 요소들 중 첫째는 논의되고 있는 주제 혹은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God's dominion)의 적용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Creator)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하는 것,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Providence),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다.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Word)이 법(law)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sup>5)</sup>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이슈이다. 왜냐하면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 나아가 개인-기업-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에 관련한 중요한 적용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개입까지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로 기독교 경제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주로 탐구에 한정되었던 사변적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초한 학문임을 수용하는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통치라는 인식 요소를 받아들인다면 이에 대립되는 학문 체계와의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 충돌을 피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한다.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혹은 정책과 같은 인간의 행동이 생각과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세계관은 그것의 구조화된 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계관이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서로 다른 경제 질서를 초래하므로 성경적 세계관은 비성경적, 무신론적 세계관 혹은 세속적 세계관과 서로 침투하는 관계에 있다(마 11:12).

침투의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 한 학문체계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5)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회적 차원의 통치의 근본이 된 것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6)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 경제학은 사회과학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넓은 학문의 범위로 재편성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유한다는 것은 그것의 질서와 가치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다. 세계관과 방법론에는 그것의 인식의 뿌리가 되는 원리가 있으므로 공유함은 원리들에 대한 암묵적 수용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현대경제학의 공리주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계급 갈등, 진화경제론의 진화적 사고체계 등을 받아들이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근본 원리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비성경적 원리들을 억압되고 강요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스스로 원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속(redemption)받는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한 구원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과 포로 된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빛을 갠지 못해 감옥에 갇혔던(마 18: 30) 상황을 고려할 때 구원이 경제적인 이슈에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영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빛을 탕감하여 달라는 의미로 일차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기독교 경제학이 구원과 관계있음을 간접적으로라도 반영하기 어렵다면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흐르게 될 우려가 있다.

셋째,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학문 체계로부터 그와 함께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수용하는 것으로의 확장이다. 기독교 경제학이 현실에서 관찰되는 경험 중에서 이성적이며 학문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에만 논의가 한정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경은 우리가 이성으로 상상하기 힘든 것조차 기록 당시 상황에서는 실제적 사실로서 기술한 책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경제학이 경제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적 원리로 해석하는 비판적 접근을 주로 하는 편이었다면 그 반대로 성경 전체에 제시된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기독교 경제학 인식 체계가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룰 수 있는 공간에 눈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므리바의 물 사건과 마라의 물 사건은 국가적(공동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통의 마르지 않는 가루와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의 집에 끊이지 않는 기름병의 채우심은 가정 경제 차원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건져 올린 많은 물고기는 사업 차원에서 각각 자원 부족 문제가 해결된 사건들이었다(민 20:2-13, 출 15:22-25, 왕상 17:8-16, 왕하 4:1-7, 눅 5:1-11). 그리고 성경의 매우 많은 곳에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늘이 문을 닫아 소출이 적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죄라는 영적 문제와 국가적 생산력 사이에 (비록 즉각적이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유형의 사례들은 성경에 자주 반복적으로 기록된 경제적인 현상인데 반복적으로 기술되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학문의 대상이 된다.

어떤 명제가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기초는 현대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리적이고 과학적인 모델링이 아니라 <if A(action), then C(consequence)> 라는 인과관계의 반복성이다(Argyris and Schön, 1974: 5-6). 성경은 방금 든 사례들과 같은 동일한 맥락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제적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대체로 묵상과 계시 차원에서 이해했고, 아쉽게도 학문적인 옷을 입혀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판된 저서들에 나타난, 경제 이슈에 관련된 묵상과 계시가 성경적 학문으로 적용된다면 큰 발전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경제학의 연구 결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혹은 그 관계를 촉진하는 기초 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기독교 경제학을 단순히 기독교(Christianity)와 경제학(Economics)의 학문적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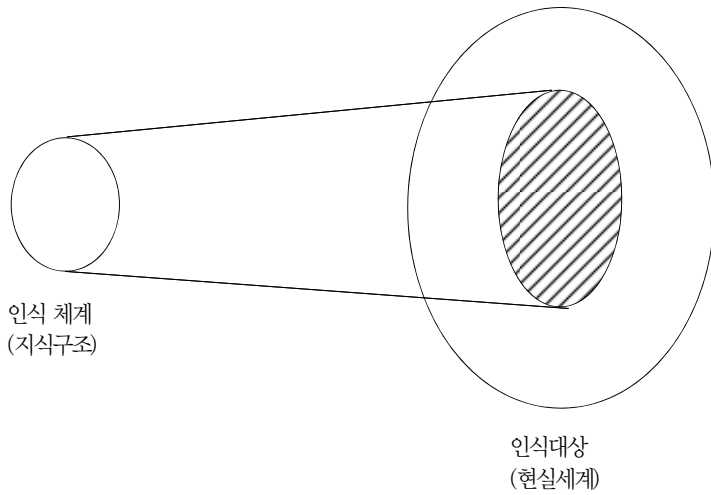
신앙을 한정시킬 우려가 있다. 단순한 학문적 결합은 경제 현실에 대한 신학적 해석 혹은 성경의 원리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등에 주목했으며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경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은 등한시되어 연구는 풍성하되 삶을 살도록 만드는 데에는 빈약했다. 성경적 지식은 단지 정보로서 가르치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 그럼으로써 사람이 지식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와 더불어 가르침의 내용(경제에 관한 성경의 진리)이 관계된 모두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거두어져야 한다(Palmer, 1993: 1장, 3장, 4장, 7장). 성경적 경제의 연구가 열매 맺는 삶과 분리된다면 여전히 학문을 위한 학문이 될 우려가 있다.<sup>7)</sup>

## (2) 기존 연구의 인식 유형과 특징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은 지금까지 제시된 네 가지 요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 현실의 상황 혹은 학문적 탐구 영역에서 서로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해왔다. 이 차이는 주로 위 요소들을 수용하여 적용하는 정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분명 이 요소들이 성경의 원리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점의 경계를 쉽게 구분 짓게 해준다. 비슷한 의미에서 김승욱(2001; 2008)은 그간의 성경적 경제학 연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 잘 분류해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 힘입어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네 가지 인식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성경적 경제학의 연구들 간의 차이를 <그림 2>에서 <그림 5>까지 표현해 보았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그림 1>을 보자.

인간은 사물을 이해할 때 모든 현상을 자신의 경험만으로 다 알 수 없으므로 망원경의 렌즈처럼 작용하는 독특한 자신만의 인식 체계를 가지고 보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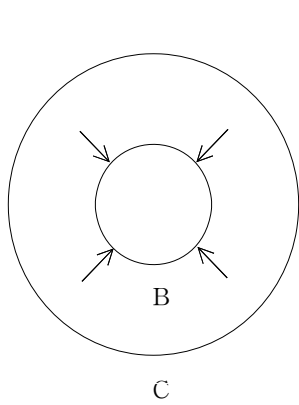
7) 보다 삶으로의 적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경제학이라는 용어보다 성경적 경제학(biblical economics)이라는 용어로 쓰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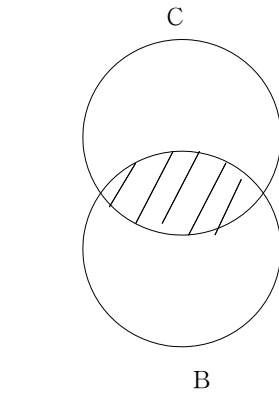
〈그림 5〉 인식 체계와 인식대상 간의 관계

위 그림에서 왼쪽의 작은 원은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반영하는 인식 체계이며 오른쪽 원은 그가 이해하고자 하는 인식대상으로서의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오른쪽 원 안의 빗금 친 부분은 현실세계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사회와 자연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광대하므로 인간의 지각과 인식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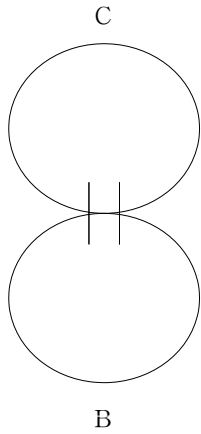
기존의 현대경제학의 인식 체계를 C (current economics)라고 하고 성경적 경제학을 B (biblical economics)라고 표현하자. 위의 〈그림 1〉에서 표현한 방식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연구된 성경적 경제학의 상대적 성격을 앞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림 2〉에서 〈그림 5〉까지의 그림들은 〈그림 1〉의 왼쪽 편에 있는 망원경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에 대한 각각의 해석과 적용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이 모두가 경제의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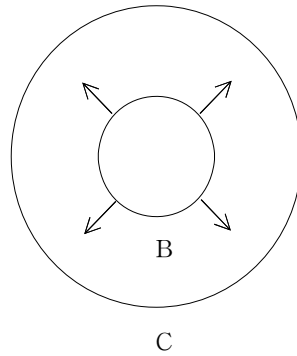
〈그림 2〉 성경적 경제학이 독립적 세계관과 방법론을 가지지 못한 경우



〈그림 3〉 성경적 경제학이 윤리, 사회 정의 영역에서 주로 현대경제학으로 침투한 경우



〈그림 4〉 성경적 경제학과 현대 경제학이 병행하는 상호보완적 경우



〈그림 5〉 성경적 경제학이 별도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가지고 현대경제학을 대체할 경우

먼저 <그림 2>는 성경적 경제학이 독립적 세계관과 방법론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김승욱(2001: 2장)에 의하면 이들은 성경적 경제학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경제학자들로서 현대경제학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며 기독교 학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 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경우는 앞서 말한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이 이 영역에 속해있다면 아마도 그들이 세계관의 충돌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므로 신앙과 삶(학문)의 관련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심의 부족은 현대경제학의 세계관과 방법론의 통치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그 세력이 확대되는 발판이 된다. 집주인이 깨어서 지키고 있지 않으면 도적이 들어와 늑탈해 가는 이치와 동일하다. <그림 2>와 <그림 5>에서 원 안의 화살표는 이와 같이 성경적 경제학과 현대경제학이 서로 침투하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성경적 경제학이 윤리, 사회 정의 영역에서 주로 현대경제학으로 침투한 경우를 말한다.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는 빈곤, 빈부격차의 문제이다. 사이더(Sider, 1997: 8장)는 많은 통계자료를 들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구제하고 돌보라는 말씀에 매우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의 실천적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주도적이다.<sup>8)</sup> 이 활동들은 반드시 크리스천 경제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때로는 종교를 뛰어넘어 협력되기도 하고, 학문적으로도 경제학을 넘어 윤리학, 철학 등으로 그리고 환경이나 경영윤리와 같

8) 엠마누엘 수녀와 아소(Emmanuelle & Asso, 2001: 33-51)의 현장 이야기는 빈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세계 곳곳에 너무나도 많다.

은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구제와 돌봄이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적절한 방법론의 결여는 경제에 관한 성경적 가치를 경우마다 별도로 설명하도록 만드는 약점이 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은 매우 뚜렷한 만큼 적용 또한 활발하다. 반면 우리가 보기에는 빈곤과 빈부격차 못지않게 심각한 경제 문제는 개인 채무 혹은 가계의 빚 문제라고 생각된다. 빚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최근의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이 집을 잃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보기 힘들다. 이사야서 5장 8절은 탐욕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토지를 삼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이 사회 엘리트들에 의한 토지와 부의 편중이라는 죄를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가 권력기 관처럼 되고(렘 5:31)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사회의 비판에 대해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빈곤의 이슈만큼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기도 어렵다. 이것은 윤리와 사회 정의를 중심으로 한 성경적 경제학이 빈곤과 빈부격차의 문제에 주로 집중함으로써 그 외의 윤리와 사회 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방법론의 개발에 눈을 돌리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다른 약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 효율성 비교 연구와 같은 소모적 논쟁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 시스템에 관한 유일한 성경 말씀은 삼상 8:4-22이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을 제공하는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즉, 해석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경적 세계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더구나 그에 기초한 성경적 방법론도 결여된 상태에서 경제 현상을 논의하는 것은 경제학자로서 가능한 일이긴 하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뿌리 없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림 4〉는 성경적 경제학이 현대경제학과 병행하는 상호보완성을 모색하

는 경우이다. 만약 현대경제학과 상호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지는 우수한 장점들이 있다. 무엇보다 이 경우는 방법론적으로 병행하므로 경제학적 언어의 의사소통이 활발할 것이다. 경제학을 새롭게 배우는 사람이나 기존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이미 저변이 넓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성경적 경제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이 가진 약점은 현대경제학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고자 할 때 믿지 않는 경제학자들이 성경적 가치가 내포된 학문으로서의 연구는 인정하되 종교가 경제학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마스덴(Marsden, 1997: 1장-3장)의 묘사에 따르면 학문의 세계는 종교를 둘러싸고 신앙 고백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성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곳처럼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통한 학자적 지위의 인정과 상호 소통에 대해 활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학자들이 내면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상호 이해의 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약점은 현대경제학과 방법론을 어느 정도 공유하게 될 때 이 공유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기초에 있는 원리가 내포하는 가치를 수용한다는 사실에서 온다. 우리가 현대경제학에 내포된 많은 이론적 모델의 기저의 원칙(underlying principles)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딜레마에 놓인다. 예를 들면 제약 하의 극대화(maximization under constraint)를 가정하는 모델이나 이윤 극대화 모델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혹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배제하도록 한다. 여호와 이레와 청지기 의식을 반영하는 성경적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현대경제학의 모델을 차용하게 되면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된다.<sup>9)</sup>

9) 옥성호(2007: 4부)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담적인 혹은 심리학적 적용들이 근본적으로 '무의식'이라는 종교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딜레마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이론적 모델로써 성경적 원리를 구현하는 연구가 비록 표현 자체는 성경적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나 이론적 모델의 원리에 포함된 가치 또한 반영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학문적 기여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모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때 딜레마가 생긴다. 이 점에서 보면 팀스트라(Tiemstra, 1993: 238-241)가 많은 지면을 들여 신제도학과적 연구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접근 또한 근본적으로 취약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필자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신제도학과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균형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현대경제학에 내재된 윤리문제나 방법론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론적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sup>10)</sup> 더 나아가 궁극적인 약점은 신제도학과 연구 자체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쇠퇴할 때 그와 방법론을 공유하는 성경적 경제학 또한 같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5>는 성경적 경제학이 현대경제학과는 별도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 말씀에 따른 경제적 원리가 적용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히년’을 토지에 적용하여(레 25:23) 현대적으로는 토지가치세를 단일세로 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헨리 조지의 이론이다 (대천덕, 2003: 136). <그림 5>에 표현된 밖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성경적 원리가 사회 전체를 겨냥하여 적용되어야

---

말씀이 다스리는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경제학적 논의는 아니나 어떤 방법과 도구의 사용 및 적용이 거기에 내재된 가치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잘 보여준다.

10) 마이어스와 지브스(Myers & Jeeves, 1987: 2부, 4부)는 기독교 심리학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인간의 심리적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영적인 존재이며 영성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감정 등의 심리적 특성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 이것은 기독교 심리학을 과학의 범주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 한다는 선포와 의지를 담고 있으며 세속적 세계관에 대한 적극적인 침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적 원리에 매우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방법론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현실적 약점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경제학의 모습은 <그림 5>와 같다. 비록 약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만약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의외로 성경적 경제학이 당면한 어려움들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참고문헌에서와 같이 크리스천 학자들이 묵상과 계시 혹은 탐구를 통하여 발견한 성경적 경제의 원리들이 매우 많고 일정한 안정된 그룹으로 묶여져 있다는 점이다(표 1 참조). 희년의 원리를 토지가치세로 적용함 같이 우리가 좀 더 애쓰면 다른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도 적용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셔서 찾게 하시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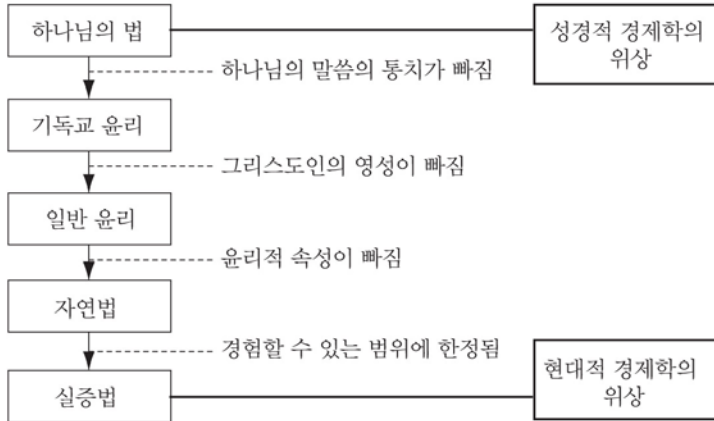
둘째로는 지금까지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자연법적 질서 하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즉 경험하고 논리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경험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성경적 경제학을 재인식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앞서 말한, 지금까지 축적된 많은 성경적 경제 원리들은 비록 말씀으로부터 드러났지만 방법론 차원에서 적절한 옷을 입지 못해 다만 표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리적이거나 혹은 모델링의 방법을 뛰어넘는다면, 즉 통상적인 의미의 과학성을 뛰어넘는다면 오히려 새로운 위상에서 성경적 경제학이 재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학문적 위상의 재구축

성경적 경제학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성경적 경제학의 학문적 위상은 현대경제학의 인식 체계를 뛰어넘게 된



다. 이것은 성경적 경제학의 위상의 도약을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은 그러한 도약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 하나님 법의 통치로부터의 학문의 단절 과정과  
성경적 경제학의 위상의 회복

크라벤담(Krabbendam, 1989: 136-139)은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이 어떻게 경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 (경영) 의사 결정에서 먼저 영적인 면과 인본주의적인 면이 서로 양극화 된 상태로 분리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서 자연법으로의 전환, 그리고 자연법에서 실증법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단절의 과정이 생겼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의 논의에 몇 단계를 더 추가하여 〈그림 6〉과 같이 표현하였고, 단절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에 거역하는 새로운 인식이 들어왔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뜻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동기 위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므로 인간의 자기중심적 자아를 강화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를 일으키며 분명히 그 원인은 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대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는 죄로부터 윤리의 법이 등장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도덕(윤리)의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죄이다(Elul, 1964: 1부). 우리는 이러한 의지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율법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하나님의 이데올로기 예수님이 오신 후 세계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시기였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때였던 동시에 기독교 영성이 배제된 지식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맞으며 인간의 사고체계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 대신에 인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졌다. 따라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버리고 인본주의적 윤리의식이 점점 확대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광범한 지식이 축적되고 분류되었다. 만물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대신 자연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자연법적 질서의 원리들을 규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덕 윤리가 쇠퇴하고 과학적 지식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단지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우주 만물이 자연법적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다.<sup>11)</sup>

마지막으로 산업화 시대에 이르러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기계문명의 발달을 낳았고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사회 발전 과정은 특히 경제 영역에서 자연법적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이 경험하게 된 규칙과 현상을 규범화하여 사회 지배(통치)의 모델로 만들었다. 현대경제학의 위치는 위 그림에서와 같이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리스도의

11) 자연법적 질서 내에서 모든 현상을 규명하겠다는 인간의 의도는 최근 인간의 모든 의식과 작용을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현상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복음과 영성, 도덕성 등이 모두 제거된 학문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경제학이 소위 ‘과학’이 되기 위해 포기한 것이다.<sup>12)</sup>

크라벤담(Krabbendam, 1989: 156)은 이와 같이 현대의 경영<sup>13)</sup>이 하나님의 영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생기는 단절을 ‘정신분열증’에 비유하고 있다. 성경적 경제학의 위상이 현대경제학과 같은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법의 수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를 질병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성경적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 수준으로 그 위상이 회복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sup>14)</sup>

### 3. 학문의 목적과 의의의 재구축

위와 같은 분리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은 성경적 경제학의 목적과 의의를 현대경제학의 목적과 의의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경제학은 인간이 경제를 자연법적 질서 하에 두면서 설명하고 예측하는, 그리고 동시에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 통제(control)란 미리 설정해 놓은 정상적인(normal) 혹은 바람직한(desirable) 범위 내에 현상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Ashby, 1964: 213). 현대의 과학적 학문의 목적과 의의를 동전에 비유했을 때 설명과 예측이 한 쪽 면이라면 통제의 욕구는 그 반대 쪽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경적 경제학의 목적을 사회 현상의 설명과 예측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원리들을 묵상과 계시 및 탐구를 통해 발견

12) 그러나 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13) 원래 의미는 관리(management)이겠지만 확대하여 해석하면 경제라고도 할 수 있다.

14) 우리는 이 문제의식이 단지 경제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학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현 시대에 맞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에 두는 것은 어떤가. 그럼으로써 성경적 경제의 원리를 탐구하고 규명하는 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가르치는 일, 현실 경제에서 성경적 경제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 이런 활동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립되는 것에서 성경적 경제학의 의의를 발견할 수는 없을까.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세상으로서 세속적 가치가 지배적인 세계이므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가운데 있다. 만약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경제에 대해 성경적 원리들을 수용한다면 앞서 말한 성경적 경제학의 학문적 목적과 의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Dominion)를 선포하는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것,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sup>15)</sup>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biblical)” 학문의 의의로서 적합하지 않겠는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적 경제학의 세계관의 중심이 되는 성경적 경제 원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담길 수 있는 그릇(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 III. 성경적 경제 원리들과 방법론의 필요성

만약 성경적 경제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서의 위상으로 재구축된다면 지금까지의 경제학 분석틀에 잘 맞지 않아서 표현할 수 없었던 매우 많은 경제 원리들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

15) 이렇게 되면 자연법적 질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하에 들어오게 되고 자연적 현상을 성경적 경제학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계시로서나 혹은 탐구의 형태로 이 원리들을 이끌어내어 왔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구체적인 하나의 규범에서부터 원리까지, 그리고 기본 전제에 관한 것부터 국가에 관한 것까지 이른다. 참고문헌의 목록 중에서 특별히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문헌은 이에 해당되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 내용들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가했다. 먼저 성경적 경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과 그 밑바닥에 흐르는 인식의 원리로 제시된 것이 무엇인지 분리했다. 그리고 각 내용에 담긴 경제적 범주를 만들었는데, 이 범주는 자연스럽게 11개의 영역이 되었다. 그 결과로 <표 1>이 만들어졌다. 범주의 수가 왜 11개이며 각각에 붙인 제목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답할 길이 없고 다만 하나의 제안이다. 선행적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중 하나인 Q-방법론처럼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다소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어서 향후 수정 보완해야 할 대상이다.

다음의 표를 보면 그 안에 제시된 구성요소 및 원리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sup>17)</sup> 이들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 구절은 매우 많기 때문에 정리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표를 살펴보자.

16)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경제윤리의 관점에서 문헌들을 분류한 예도 있다(황희영, 2008b 참조).

17)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경제학의 과제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탐색이라기보다는 재구조화에 더 밀접하다고 하겠다.

〈표 1〉 성경으로부터 이끌어 낸  
 성경적 경제 원리들의 분류와 구성요소들

주요 영역	경제에 대한 성경적 인식들	인식 원리
기본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부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li> <li>· 하나님의 경제는 영(spirit)에 속해 있는 반면 세상의 경제는 육(flesh)에 속해 있다.</li> <li>·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 대한 축복</li> <li>·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li> <li>·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li> <li>· 물질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함</li> <li>·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li> <li>·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심</li> <li>·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li> <li>·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li> <li>·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정신</li> <li>· 사유재산의 인정</li> <li>· 제도적 질서에 대한 존중</li> <li>· 불순종과 죄의 결과는 궁핍과 경제적인 황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주 하나님</li> <li>·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예배자로서의 부르심</li> <li>·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li> <li>· 화평케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li> <li>·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li> <li>· 공동체를 보전하시는 하나님</li> <li>· 여호와 살롬</li> <li>·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li> </ul>
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재정의 위기에서 구하신다.</li> <li>· 나눔으로써 흑암의 권세를 꺾음</li> <li>· 심고 거두기</li> <li>· 의의 열매를 위한 씨앗 뿌리기</li> <li>· 배가의 법칙</li> <li>· 나눔의 축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혜의 법칙</li> <li>· 거저 주시는 하나님</li> <li>· 거저 주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li> <li>·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li> <li>· 의로우신 하나님</li> </ul>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거저 주신다.</li> <li>· 만나를 주심</li> <li>·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심</li> <li>· 필요를 채워주심</li> <li>· 자족하는 삶</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혜의 법칙</li> <li>·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li> <li>· 여호와 이레</li> </ul>

주요 영역	경제에 대한 성경적 인식들	인식 원리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죄의 대가이나 저주는 아님</li> <li>·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li> <li>·노동의 대가로 땅의 소산을 얻음</li> <li>·일하는 소의 입에 멩에를 씌우지 않음</li> <li>·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li> <li>·소명으로서의 직업</li> <li>·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하시는 하나님</li> <li>·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li> <li>·그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li> </ul>
지혜와 창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심: 오홀리압과 브살렐</li> <li>·하나님은 기적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령은 창조와 영, 지혜의 영</li> </ul>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심</li> <li>·말씀에 순종</li> <li>·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li> <li>·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의사결정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령의 인도하심</li> <li>·순종</li> <li>·하나님의 음성 듣기</li> </ul>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속을 지키</li> <li>·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식을 취하지 말라.</li> <li>·정직한 거래(추를 속이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li> </ul>
재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지기 의식</li> <li>·도시를 다스릴 권세의 위탁</li> <li>·청지기의 책임성 (결산)</li> <li>·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li> <li>·빛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li> <li>·온전한 십일조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체성 - 소유를 맡기심</li> <li>·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의무</li> <li>·노예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심</li> </ul>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li> <li>·백성들에게 가족을 위해 토지를 기업으로 주심</li> <li>·희년</li> <li>·토지 무르기</li> <li>·토지의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li> <li>·토지의 안식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심</li> <li>·우리를 자유롭게 하심</li> </ul>

주요 영역	경제에 대한 성경적 인식들	인식 원리
생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의 풍요로움</li> <li>·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국가적 생산력이 달라짐</li> <li>·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번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li> <li>·열매 맺는 삶</li> </ul>
국가의 통치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허락하심: 조세</li> <li>·통치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백성의 필요를 채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이신 하나님</li> <li>·세상의 왕을 통한 통치를 허락하심</li> </ul>
사회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식년에 빚을 탕감해주라.</li> <li>·추수 때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 남겨 두라.</li> <li>·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공호히 여기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li> <li>·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li> <li>·공홀을 베푸시는 하나님</li> </ul>

위 <표 1>을 보면 현대경제학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었다라면 전혀 다루지 못했을 원리들이 많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해보자. 먼저 위에서 세 번째 영역인 소득에서 인식의 원리 중에 ‘은혜의 법칙’ 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신데 은혜로 우리의 쓸 것을 거저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것을 받아서 쓴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주신 것에 대해 우리에게서 대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필자가 아는 한 엘릴(Elul, 1950: 80-92)에서 제시되었는데 안시(Yancey, 1997: 1부)에서 은혜의 의미가, 그리고 힐과 피츠(Hill & Pitts, 2001: 3장)에서 은혜의 법칙이 어떤 재정적인 원리인지 각각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것의 반대는 ‘매매의 법칙’ 인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대가 없이는 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때 그것을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은혜의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또 얻은 것을 주는 것에 대해 보다 유연하며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돈과 물질에 대해 무엇보다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방향과 일치한다(마 6:33). 그것은 또한 인간이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쓸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는 잠시 이 세상에서 맡겨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이 재정관리 영역의 핵심인 청지기 의식(stewardship)이다. 성경적 경제와 경영에 관한 국내 외의 많은 문헌에서 성경의 경제 원리 중 가장 많이 공감하고 수용되는 개념이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보인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용되는 청지기 의식에 대해 개인(가정) 재정 관리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헌이 있다. 성경적 경제학이 이것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할지는 미래에 달려있다. 인상적인 경우로서 알콘(Alcorn, 2003: 2부)은 청지기가 주인과의 결산의 의무가 있음에 주목하여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의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현재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영생, 즉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가 개입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청지기 의식은 개인의 빚(채무) 관리에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실 경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 중 하나가 과도한 개인(가계) 채무이다. 과도한 채무는 가정의 삶의 행복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이다. 채무는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빚에 얽매이게 만들고 삶의 여유를 빼앗으며 심지어 목숨을 버리도록 만든다. 빚을 갚기 위한 교회적 상담에서 놀랍게도 빚진 자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이 있음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것은 채무 관리가 매우 영적인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또 다른 주인이 맘몬인데, 맘몬은 우리로 하여금 빛에 영원히 매여 있게 하여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Burkett, 1975b: 4장).

지금까지 본 몇 가지 원리들은 외견상 매우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내포된 성경적 원리의 깊이는 매우 깊고 묵상이나 계시, 그리고 탐구의 영역은 매우 넓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이 깊은 묵상들을 정리하고 실천적인 적용에 충실해왔으나 독자적인 학문적 방법론의 깊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sup>18)</sup> 방법론의 관점에서 비관적으로 본다면 아직 기초가 전혀 없어 보이나 오히려 낙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자신이 그만큼 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방법론의 틀을 만든다면 그 동안의 묵상과 계시와 탐구의 콘텐츠를 담아 주요 영역마다 별도의 분과 학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가 <그림 5>에서 제시한 것처럼 세상의 학문을 이기며 천국을 침노하는 성경적 경제학의 토대가 되리라 믿는다.

####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 경제학이 어떻게 재구축될 필요가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인식 체계를 중심으로 재구축되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 고려해야 할 인식 요소들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보았고, 그로부터 학문적 위상과 목적 및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둘째,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많

18) 최근 몇 년 전에 청부(淸富)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양적으로는 많은 저술들이 쌓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충분한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여 논쟁은 매우 소모적이고 비판 중심이어서 두 편으로 분열된 것처럼 보였다. 논쟁은 수용할 수 있지만 분열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동호, 2001: 3부; 김영봉, 2003: 1부, 2부 참조).

은 연구자들이 쌓아 놓은 성경적 경제 원리들을 정리했고, 그로부터 앞서 제기한 인식 요소들을 고려하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이 방법론을 스스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이 혼자서 혹은 단지 몇 사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큰 도전이므로 결국 기독교 경제학자 공동체의 과제로 삼을 것인가의 선택이 남아있다고 본다.

방법론 개발이 중요한 도전이 되는 또 한 측면은 기존의 경제학이 학문적으로는 대중과 소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경적 경제학은 이와 반대로 보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만들 필요를 가진다는 점이다. 조지스트들의 경우처럼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 땅에서 토지가치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언어로 만든 것은 좋은 모범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성경적 경제학의 언어를 만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과의 교통(언어소통)이 단절된 이후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이 잘 알다듣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성경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이와 같은 작업이 진행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으로서 앞서 제안한 인식 체계와 방법론에 이어 세 번째의 제안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회의 변화를 위해 성경적 경제학을 교육하는 것이다. 참고문헌의 목록과 경제 현실을 동시에 보면 묵상과 계시는 많으나 나눔과 실천은 거의 없는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적 경제 원리들 중 빈곤과 빈부 격차의 문제는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의 수와 교회의 규모, 기독교 대학의 수 등에 비해 볼 때 거의 주목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경적 경제에 대해 왜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는가? 성경적 경제를 가르칠 수 있고 배우며, 또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은 교회, 주일 학교, 기독교 대학 혹은 학과이거나 그 외 기독교 단체들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이들에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원리들

을 담은 텍스트를 제공하여 가르친 것 같지 않다. 전국의 대부분 기독교학과에서 성경적 경제학이라는 교과목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저야 할 책임이다.

우리는 이 교육이 단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동안 교회를 통하여 전달된 많은 지식이 얼마나 삶과 분리되었는지 살펴보면 객관적 지식이 어떻게 인간을 소외시켰는지, 그리고 그런 지식(교육)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공허한지 느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 내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는 꿈을 꾸다면 그것은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힘써 일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닐까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원돈 (2001), 『살림의 경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 기독교경영연구원 (2004), 『기독교경영 로드맵1』,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동호 (2001), 『깨끗한 부자: 청부(淸富)』, 서울: 규장.
- \_\_\_\_\_ (2005), 『행복한 부자를 위한 5가지 원칙』, 서울: 청림출판.
- 김병연·조성봉 (2008), 『크리스천 경제소프트』, 생명의 양식.
- 김성주 (2000),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서울: 중앙 M&B.
- 김승욱 (2008), “한국 기독교 경제학의 유형과 발전 방향” 『신앙과 학문』, 13(1), 9-44.
- 김영봉 (2003), 『비늘귀를 통과한 부자: 그리스도인,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 서울: IVP.
- 김재진 (1990),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경제발전의 비전』, 서울: CUP.
- 김진홍 (2001), 『성경의 경제와 경영』, 서울: 두레시대.
- 김홍기 (2001),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대천덕 (2003), 『토지와 경제정의』, 서울: 홍성사.
- 박철수 (2001), 『돈과 신앙』, 서울: 예찬사.
- 방선기 (1994), 『기업경영과 하나님 나라』, 서울: 엠마오.
- \_\_\_\_\_ (2006), 『이리 가운데 분투하는 양을 위한 콘서트』, 서울: 브니엘.
- 배종석 외 (2006),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기업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손경구 (2002), 『돈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 양명수 (1997), 『기독교 사회정의론-가락하신 하나님』,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 옥성호 (2007),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유성은 (2008), 『행복한 부자』, 서울: 평단.
- 이상준 (2008),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기』, 서울: 요단.
- 이우성 (2001),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역사적 소고” 『신앙과 학문』, 6(2), 43-73.
- 이운재 (2004), 『성경속의 경제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이정우 외 (2002),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임성일 (2004), 『크리스치노믹스 - 크리스천의 경제관과 경제생활』, 서울: 쿠퍼출판사.
- 전강수·한동근 (2000),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 이야기』, 서울: CUP.
- 전광 (2005),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조상국 (1989), 『크리스찬 경제학도를 위하여』, 서울: CUP.
- 조성기 (2005), 『유일한 평전』, 서울: 작은 씨앗.
- 채수일(편) (1993), 『기독교 신앙과 경제문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 한국기독교윤리학회·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편 (2004), 『경제 문제와 기독교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한상화 (1998), “칼빈의 경제윤리”, 한국칼빈학회,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황봉환 (2003), 『기독교 경제 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황호찬 (1996), 『돈, 그 끝없는 유혹』, 서울: IVP.

- 황희영 (2008a),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을 위한 시론,” 『로고스경영학회』, 6(1), 129-145.
- \_\_\_\_\_ (2008b), “문헌조사를 통해 본 기독교경제윤리의 주요 문제의식과 분야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16, 291-333.
- Alcorn, Randy (2001), *The Treasure Principle*, 유정희 역 (2002), 『부자 그리스도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
- \_\_\_\_\_ (2003),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김신호 역 (2006), 『돈, 소유, 그리고 영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Argyris, Chris and Donald Schön (1974), *Theory in Practice*, NY: Wiley John & Sons.
- Ashby, W. Ross (1964), *Introduction to Cybernetics*, London: Routledge.
- Avanzini, John (1990), *War on Debt: Breaking the Power of Debt*, 송원섭 역 (1998), 『채무의 영을 결박해야 산다』, 서울: 베다니출판사.
- Avanzini, John (1992), *It's not Working Brother John*, 오태용 역(1997), 『십일조를 잘 해도 왜 안 풀리죠』, 서울: 베다니출판사.
- Beckett, John (1998), *Loving Monday*, IL: Downers Grove, IVP.
- Biéler, André (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2003),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urkett, Larry (1975a), *How to Manage Your Money*, 김동윤 역 (1993), 『돈, 다스리기(1)』, 『돈,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3)』, 『올바른 돈관리 (지도자용)』, 서울: 규장.
- \_\_\_\_\_ (1975b), *Your Finance in Changing Times*, 박정윤·조성표 역 (1993),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서울: CUP.
- \_\_\_\_\_ (1977), *What Husbands Wish Their Wives Knew About Money*, 김의자 역 (1994), 『가정 경제의 지혜』, 서울: 보이스사.
- \_\_\_\_\_ (1990), *Business by the Book*, 김종근 역 (1995), 『성경 속의 경영학』, 서울: 엠마오.
- \_\_\_\_\_ (1992), *Answers to Your Family's Financial Questions*, 박영옥 역 (1992),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서울: 목회자료사.

- Chewning, Richard C. (ed.) (1989),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Foundations*, 로고스경영연구원 역 (2005), 『성경의 경영 원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_\_\_\_\_ (ed.) (1990),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Practice*, 기독교 경영연구회 역 (1993),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 서울: IVP.
- Chewning, Richard C. and John W. Eby, Shirley J. Roels (1990), *Business through the Eyes of Faith*, 안동규·한정화 역 (1995),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 서울: IVP.
- Cunningham, Loren (1980), *Is That Really You, God?*, 예수전도단 역 (1989),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서울: 예수전도단.
- \_\_\_\_\_ (1991), *Daring to Live on the Edge*, 문효미 역 (1993), 『벼랑끝에 서는 용기』, 서울: 예수전도단.
- Duchrow, Ulrich (1998), *Alternatives to Global Capitalism*, 손규태 역 (1998),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서울: 한울.
- Ellul, Jacques (1950), *L'homme et l'argent: nova et vetera*, 2e édition complétée, 양명수 역 (1991), 『하나님이나 돈이냐』, 안양: 대장간.
- \_\_\_\_\_ (1964), *Le vouloir et le faire*, 양명수 역 (2008), 『원함과 행함』, 서울: 솔로몬.
- Emmanuelle, Soeur & Philippe Asso (2001), *Richesse de la pauvreté*, 백선희 역(2001), 『풍요로운 가난』, 서울: 마음산책.
- Fleming, Jerry (2003), *Profit at Any Cost?*, 황을호 역(2006), 『정직한 경영이 돈을 번다: 기독교와 경영윤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 George, Henry (1879), *Poverty and Progress*, 김윤상 역 (1997), 『진보와 빈곤』, 서울: 바봉출판사.
- Griffiths, Brian (ed.) (1972), *Is Revolution Change?*, 한화룡 역(1989), 『혁명만이 변화인가?』, 서울: IVP.
- Haltzman, James (1997), *The Clashing Worlds of Economics and Faith*, 김원주 역(1999), 『신앙과 경제』, 서울: 아가페.

- Hartman, Jack (1983), *Trust God for Your Finances*, 오태용 역(1994),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서울: 베다니출판사.
- Hartropp, Andy (1997), "Christianity and Economics: An Annotated Bibliography,"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December, pp. 1-33.
- Hay, Donald A. (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전강수(외) 역(1996),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서울: IVP.
- Hill, Craig and Earl Pitts (2001), *Wealth, Riches and Money: 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허령 역 (2004),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서울: 예수전도단.
- Krabbendam, Henry (1989), "사업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Richard C. Chewning (ed.),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Foundations*, 로고스경영연구원 역 (2005), 『성경의 경영원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Marsden, George M.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조호연 역 (2000), 『기독교적 학문 연구 @현대 학문 세계』, 서울: IVP.
- Marshall, Rich (2000), *God @ Work*, 이선희 역 (2005), 『왕의 사역』, 서울: 서로사랑.
- \_\_\_\_\_ (2005), *God @ Work, Volume 2: Developing Ministers in the Marketplace*, Shippensburg: Destiny Image Publishers.
- Maxwell, John, Stephen Graves and Thomas Addington (2006), *Life @ Work*, 김용환 역(2008), 『Life @ Work』,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Meeks, M. Douglas (1989),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홍근수·이승무 역 (1998), 『하느님의 경제학』, 서울: 한울.
- Miller, Darrow L. (1998), *Discipling Nations: The Power of Truth to Transform Cultures*, 윤명석 역 (1999),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서울:



예수전도단

- Myers, David and Malcolm A. Jeeves (1987), *Psych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박원기 역(1995), 『신앙의 눈으로 본 심리학』, 서울: IVP.
- Oxford Declaration of Christianity and Economics (1990), [www.esa-online.org](http://www.esa-online.org)
- Ozment, S (1993),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박은구 역 (2004),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 서울: 헤안.
- Palmer, Parker J.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이종태 역 (2006),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Polanyi, Karl (1977), *The Livelihood of Man*, 박현수 역 (1983), 『사람의 살림살이 I, II』, 서울: 풀빛.
- Rush, Myron (1983),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한석희 역 (1995), 『예수의 경영원리』, 서울: 요나.
- Sen, Amartya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박순성·강신욱 역 (1999), 『윤리학과 경제학』, 서울: 한울.
- Shorto, Russel (2004), "Faith at Work," *New York Times*, Oct. 31.
- Sider, Ronald J. (1997), *Rich Christians and Age of Hunger*, 한화룡 역 (1998),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서울: IVP.
- Silvoso, Ed (2002), *Anointed for Business*, 조성국 역 (2004), 『사업을 위한 기름 부으심』, 서울: 순전한 나드.
- Tamasy, Robert J. (ed.) (1991), *The Complete Christian Businessman*, 대구 기독교경영연구회 역(1999), 『완전한 성공(1): 일터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CUP.
- \_\_\_\_\_ (ed.) (1991), *The Complete Christian Businessman*, 대구 기독교경영연구회 역 (2000), 『완전한 성공(2): 가정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CUP.
- Tiemstra, John P. (1993), "Christianity and Economics: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Christian Scholar's Review*, 22(3), 227-247.

- Wagner, C. Peter (2006), *The Church in the Workplace*, 이건호 역 (2007),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 서울: WLI.
- \_\_\_\_\_ (2008), *Dominion*, 서종대 역(2007), 『Dominion』, 서울: WLI.
- Weber, Max (1904),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성수 역(2006),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 Yamamori, Tetsunao and Kenneth A. Eldred (eds) (2003), *On Kingdom Business*, 최형근 역(2008), 『킹덤 비즈니스』, 서울: 조이선교회.
- Yancey, Philip (1997),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윤종석 역(2003),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서울: IVP.

## ABSTRACT

### A Research of Epistemological Framework to Reconstruct Biblical Economics

Hee Young Hwang(Youngsan University)

Since more than three decades ago, there have been criticisms by Christian economists regarding modern economics centered on market capitalism. These criticisms have two main streams: one is about ethical issues or value judgment, and the other is about economic methodology. Simply summarizing these criticisms, we can say modern economics is inconsistent with biblical economic principles.

However, studies of Christianity and economics have their weakness in that they did not fully propose alternative theories or methodology. In addition, the authors take diverse views of understanding *vis-à-vis* biblical economics. They have different epistemological basis about it. So, in order that we may have a proper biblical economics, we need to have a break through.

In terms of reconstructing biblical economics, our proposals are threefold. First, we need to restructure our epistemological framework including position and purpose of biblical economics. Second, regardless of differences among biblical economic studies, they are converging in the sense that they focus on biblical economic principles. Thus we need to develop methodologies based on each of these principles.

Finally, we argue the importance of a proper education of biblical economics based on these biblical principles and new epistemological framework, so that teaching and learning of biblical economic knowledge will bear fruits of substantial social changes.

keywords: Christianity and Economics, Biblical Economics, Principles of Biblical Economics, Epistemology of Biblical Economics, Purpose of Biblical Economics, Positioning of Biblical Economics